

★ 소설 ‘하늘은 맑건만’ 낱말 뜻 이해하기 ★

1학년 ()반 ()번 이름:()

1. (): 가운데돌로 들어가는 대문이나 대문안에 또 세운 문.
2. (): 떡을 찌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.
3. (): 실속이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4. (): 도무지, 아무리 해도
5. (): 종이에 인쇄를 하여 만든 화폐. (15쪽)
6. (): 예전에,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의 고기를 끓여 팔던 가게.
7. ():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.
8. (): 말이나 행동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다.
9. (): 끊임없이 잇따라. (14쪽)
10. ():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.
11. (): 슬라이드 따위에 강한 빛을 비춰 반사된 상을 렌즈로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추는 장치.
12. (): 어떤 일에 손을 댈.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. (17쪽)
13. ():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방식의 문이나 창. (18쪽)
14. ():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높은 돌출계.
15. (): 활짝 달려들어 움켜잡는 모양을 뜻하는 ‘덥석덥석’의 뜻.
16. (): 큰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. ‘자칫’의 뜻
17. ():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.
18. ():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.
19. ():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자리로 옮겨 가게 하거나 옮겨 놓다. (18쪽)
20. (): 조건을 붙여서 약속함.
21. (): 정해진 시간에 이름. 또는 그 무렵.
22. (): 시세나 흥정에 따라 결정되는 물건의 값.
23. (): 자신에게만 이롭게 꾀를 부리는 성질이 있다.
24. (): 말이나 행동을 능글맞고 흥하게 하다.
25. (): 널빤지로 천 올타리.
26. ():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. (24쪽)
27. ():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하던 짓을 멈추다.
28. ():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님. (24쪽)
29. (): 성질이나 태도가 끈덕지다.
30. (): 뜻하지 아니한 때. (24쪽)
31. (): 무릎 뒤쪽의 오목한 부분.
32. (): 소문을 퍼뜨리다.
33. (): 어떤 일을 마치거나 그만두다.
34. (): 일이나 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다.
35. (): 버 이외의 온갖 어린 식물. 또는 그것을 옮겨 심음.
36. (): 부엌 벽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붙여 만든 장.
37. (): 염치나 두려움이 없이 제 고집대로 버티는 힘.
38. (): 들어서 여는 창.
39. (): 일제 강점기 때 교과목 중 하나. 지금의 도덕 과목에 해당함.
40. (): 몹시 귀찮게 구는 일. (20쪽)